

# 작은 도마뱀

- 9월 창간호



## “연애하다 우리?! 마닐라에서의 첫날밤”



What can we do?

쉽고 재밌는 ALS, 너 그거 아니? 우린 알아쓰!  
Feed children. 아이들에게 즐거움의 영양분을!



Acculturate, inculturate!

우리는 가족이다.  
필리핀에서 기타란?



We are TRULY living here!

[Our Mind] SAN VICENTE

- PAG-ibig At PAG-ASA(사랑과 희망)
- BALOC. 우리는 건설을 보고, 건설을 만든다.

[Our Body] 우리는 달린다, 마일로 마라톤  
· 가라데, 하자메!

[Our Spirit] 우리들의 스케치북. 9월을 돌아보며



Coverletter\_커버leter

라운아띠 6기 필리핀팀이 월간 소식지 작은 도마뱀[Malilit Butiki] 창간호를 출간했다. 'Malilit(말리잇)'은 필리핀 언어인 띠갈로그어로 '작은', 'Butiki(쁘띠끼)'는 '도마뱀'이라는 뜻이다. 이곳 필리핀에서 필리피노를 제외하고서, 여느 장소를 불문하고 살고 있는 거주민 뽀띠끼 귀엽고도 친근한 모양새와 귀여운 띠갈로그어 발음으로 처음에 확 우리들의 귀에 꽂힌 단어였는데, 그것이 곧 우리 모두가 동시에 외친 월간 소식지의 이름이 되었다. 크기도 작기도 길쭉하기도 오동통하기도 찬 뽀띠끼 각각 다른 모양새의 우리들을 보여주는 것 같다. 우리들의 월간 소식지 작은 도마뱀에서는, 평범하지만 모두 제각기 다른 색을 지닌 다섯 명의 멤버들이 바로 이 잡지의 주인공이자 편집자, 그리고 기자이다. 비록 시작은 미미하겠으나 툭툭 튀는 생각과 우리만의 맛깔 나는 스토리들로 가득 채워 서서히 애독자 층을 형성하자는 것이 우리의 소소한 목표.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경험들을 여기에서 맛있게 먹고, 그 음식들의 레시피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 대접하는 일일 것이다.

월간 소식지 '작은 도마뱀'을 더 재미있게 읽기 위해 참고해야 할 것!! \* 9월의 띠갈로그어 및 인명 사전 \*

Butiki[쁘띠끼]: 도마뱀. '비록 내가.. 할지라도 나를 사랑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뽀띠끼 송이 있을 정도로 필리핀에서 인기가 많은 뽀띠끼 필리핀 팀 월간 소식지이자 기타 밴드의 이름이기도 하다.

Malilit[말리잇]: '작은'이라는 뜻. 반대말은 Malaki[말라끼]이다. 막내 같지 않게 크고 힘도 센 건희는 '말라끼 분소'라 불린다.

Tita[띠따]: 이모 또는 고모.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를 부를 때 사용.

Tito[띠또]: 삼촌.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부를 때 사용.

Ate[아띠]: 언니 또는 누나. 우리 가족에서 아띠는 민선과 가훈이다.

Kuya[쿠야]: 오빠 또는 형. 우리 가족에서 쿠야는 동수와 승건이다.

Bunso[분소]: 막내. 가족 구성원 중 가장 어린 사람을 지칭할 때 쓴다. 우리 가족의 분소는 건희.

Barangay[바랑가이]: 마을을 뜻한다. 우리는 바랑가이 Bagong Pook(바공 포옥)에 살고 있다.

Salamat po![살라맛 뽀]: '감사합니다!' 라는 뜻. 가장 먼저 우리 머리에 들어온 문장이다. Salamat은 '고마워', po는 존칭의 표현이다.

Masarap![마사랍]: 맛있었다. 무슨 음식이든 입에 맞아서 잘 먹어 치우는 우리. 이곳에서 먹는 필리핀의 음식은 모두 마사랍!



SAM[쌤 O, 샘 or 쌤 아님]: YMCA San Pablo의 Youth Director를 맡고 있다. 생김새 때문에 자메이카 출신이 아니냐는 놀림을 받기도 한다. 툭 튀어나온 배와 하얀 차아, 건들건들한 팔자 걸음이 특징이다. 노...놀림지만 다섯 살 연하의 여자친구가 있다. 알버트의 베프. 취직을 해서 곧 회사를 다니느라 바빠지겠지만 9월 한 달 내내 우리와 함께 했고, 앞으로도 없어서는 안 될 YMCA의 감초. 아, 앞으로 월간 소식지에 자주 등장할 예정.



Mommy Kristy[마미 크리스티]: 엄마 크리스티. YMCA San Pablo의 General Secretary이다. 두 자녀인 아들 아이언과 딸 제적을 비롯해서, 라운아띠, Batang Y(YMCA의 청년 봉사자들) 4명, ALS 센터의 Learner들 등등 만인의 엄마이다. 라운아띠 멤버 다섯 명의 훗내를 잘 내린다. 작은 채구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YMCA San Pablo의 모든 일을 관장하신다.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동안 외모의 소유자. 알버트에게 안겨있는 모습은 소녀 그 자체.



\* 캐릭터 소개 \*



Daniel[다니엘]: 정동수. 대니얼. 세군맨, 페퍼로니(알버트와 콤비네이션), 람부탄, 감자, 재..키찬.. Boneless 동수, 순살 동수(유연한 몸 덕분에). 9월 한달 동안 리더를 맡았다. 그를 설명하는 형용사로는 주로 serious, typical 등이 있다. 필리핀에 와서 '재키 찬'을 닮았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으며, 매력포인트를 굳이 찾자면 얼굴의 입체감을 더하는 두 개의 덧니가 있다. 식사를 할

때 '아, 배부르다'라는 소리를 하면 그 뻘 이제 절반을 먹었다는 소리다. 가끔 알버트의 인기를 시범하긴 하는데, 애써 태연한 척 한다.

Albert[알버트]: 양승건. 앨버트, 알벌, 알벗. 나무늘보, 개미핥기, 피망(다니엘과 콤비네이션), 원숭이, 야오 링(중국의 농구선수), 사쿠라기(슬램덩크의 강백호), 식빵맨, 브로커(Broker): 신조어, 부수는 사람. 그는 이미 몇 개의 의자를 부수었다. 필리핀에서 드문 아주 큰 키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라이징 스타이다. 방정 뜯는 따갈로그어 실력을 자랑한다. 막내 아들다운 애교로 마미들의 사랑을 받는다.



Honey[허니]: 김가훈. 스위트 원. 허니비. 한국에서 그녀의 천한 친구가 그녀를 김가흐니, 흐니..라고 불려서 영어 이름이 '허니'가 되었는데 요고 참 유용하다. 벌을 조련하는 법을 알고 있다. 시조새 같이 생긴 동물에 약하다. 맨 처음에만 낫을 가리는 특유의 애교로 San Pablo 폴리스 맨들의 마음을 녹였다. 그녀 덕분에 우리의 보안은 든든하다. 호탕한 웃음소리와 동생들을 능가하는 사랑스러움으로 우리 가족의 활력소가 되어준다. 망고쉐이크와 초코파자 스펀지를 사랑한다. 멤버들의 선체부위에 관심이 많아 개인적으로 콜렉션을 만들고 있다. 액체를 마시는 위를 따로 가지고 있다(보통 사람의 3배 정도)

Sun[썬]: 이민선. 팀 내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유의 쿄바람소리로 몇 명의 아이들 사이에서 매니아 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 중 한 남자 아이의 애정 어린 그림 편지를 받았다. 여자 멤버들 중 제일 빨리 일어난다. 지니가 무서워하는 벌레를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퇴치해준다. 과일을 정말 좋아한다, 특히 람부탄. 그녀는 가발핀 몸통을 가지고 있지만 체력만큼은 일등이다. 마미에게 "I have a question!"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호기심 소녀. 그러나 이곳에서도 여전히 'Lola(할머니)'라는 별명이 생기고 말았다.. 이 딸의 칭찬왕(선정은 허니가..), 썬의 칭찬은 허니를 좋추게 한다.



Genie[지니]: 문건희. 딸라끼 분소(큰 막내), 포도알(보라색 옷을 입고 있을 때), 군밤(안색이 좋지 않아 유난히 까만 날), 먼치킨(베이비 파우더를 발랐을 때), 반디쌀(필리핀 모닝빵), 지니 폼 더 바틀(bottle): 램프의 요정. 벌레에 약하다(특히 바퀴벌레). 포레 뭇 남성들 사이에서 페이스북 주소를 무려 두 번이나 떠였다. 허니의 지도와 썬의 보조 덕분에 나날이 애교가 늘어가고 있다. 가끔 잘 때 허니나 썬을 껴안고 자는 습성이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특건드리지 않는 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지니의 유머는 허니를 환희하게 한다. 초콜릿을 사랑한다. 특히 여기서 초코파자 스펀지에 중독되었다.

\* 9월의 일정 \*

Mon	Tue	Wen	Thu	Fri	Sat	Sun
			1	2 Arrival @Manila, City Tour	3 Orientation of YMCA	4 Arrival @San Pablo, Welcoming Ceremony
5 Visiting Barangay SAN LUCAS II, SAN GREGORIO	6 Visiting ALS, Bagong Pook E/S	7 Visiting SAN GREGORIO	8 Refection: meeting with pro. Bishop TEX	9 Visiting Bagong Pook E/S, Reflection	10 practicing Marathon, Preparing Closing Ceremony	11 MILO Marathon
12 Launching 'Piso mula Sa puso'	13 Closing Ceremony @YMCA, Birthday Party of Albert!	14 Visiting San Vicente	15 Meeting @Bagong Pook E/S, Fiesta @San Solidad, Visiting San Francisco	16 Refection: meeting with pro. Bishop TEX	17 English Lesson, Karate CLASS	18 English Lesson, Karate CLASS
19 ALS CLASS @San Gregorio	20 Meeting @Bagong Pook E/S, Visiting BALOC, Visiting PAG-ibig at PAG- ASA	21 ALS CLASS @San Gregorio	22 Feeding @Bagong Pook E/S, Life Sharing meeting	23 ALS CLASS @San Gregorio, Reflection	24 English Lesson, Karate CLASS, SAM'S birthday!	25 English Lesson, Karate CLASS, Reflecion meeting with Mommy
26 ALS class @San Gregorio, ALS new batch orientation	27 Visiting Dormitory of BALOC	28 ALS CLASS @San Gregorio, Visiting Kawad Kalinga	29 Visiting Kawad Kalinga, Visiting DSWD	30 Preparing to go to Aurora!!		



## “연애하다 우리?! 마닐라에서의 첫날밤”

우리 연애합니다! 한국을 떠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선언합니다.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라구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섯 명이 다 함께 연애하고 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5개월을 살아갈 San Pablo로 떠나기 전, 마닐라에서 이틀 동안 묵게 되었던데요. 맥주 한 캔씩을 들고 가볍게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해서의 느낀 점, 앞으로의 각오들, 그리고 서로에 대해 궁금한 것들까지.

그러다 각자의 연애사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그 때 가훈이 말했습니다. “라운아피는 연애하는 거 같애..! 연애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고 생각나고.. 가끔은 서로에게 소원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싸우기도 토라지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사랑이 샘솟아 나고. 그런데 지금 우린 동시에 네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넷 중에 한 명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좋고,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좋고.. 결국 모두를 동시에 서로 사랑하는 거지.”

“오, 그럼 라운아피는 사(4)다리네!”

“그래 그렇지, 우린 각자 다른 면을 사랑하는 네 사람을 만나는 거네.”

그 순간 모든 멤버들이 공감했습니다. 딱 그랬거든요. 우리 앞에 어떤 나날들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기대하고, 알 것 같으면서도 아직은 잘 모르는 서로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고..

국내훈련을 받을 때, 이제 우리는 운명동체다, 가족이다 등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서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 결정지어진 것. 그건 가족의 요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삶을 살아오던 각자가 모여 서로를 차츰차츰 알아가고, 갈등이 있더라도 사랑을 바탕으로 그걸 맞춰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연애와 비슷한 요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엄마와 함께 이야기한 우리들의 하우스 룰은 “NO Boyfriend, NO Girlfriend!!!”입니다. 마닐라에서의 첫 날과 지금은 또 다릅니다. 서로의 가공되지 않는 얼굴을 보는 건 기본이고, “꺼여, 익스큐즈미~” 등등.. 연애의 느낌? 그런 건 다 잊어버린 듯합니다.

한 달 뒤, 10월을 마무리하면서는 라운아피를 뭐라고 정의 내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한 달이 지나면서 우리의 다양한 스토리가 생기면서 생각도 많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지금 느끼는 이 콩닥콩닥한 마음은 쪽 이어가고 싶습니다. 아자!



## What can we do?

쉽고 재밌는 ALS, 너 그거 아니? 우린 알아쓰! / Feed children, 아이들에게 즐거움의 영양분을!

## 쉽고 재밌는 ALS, 너 그거 아니? 우린 알아쓰!



Written by Honey & SUN

ALS(Alternative Learning System)는 학교 밖으로 벗어난 아이들에게 배우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프로그램이다. (\*사실, 학생들은 다양한 연령대이고, 몇몇은 우리또래의 나이이지만, 좀 더 친근한 우리만의 표현으로 아이들이라고 지칭한다.)

DepED(Department of Education)의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로 현재 YMCA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5기까지의 ALS수업은 Elementary School level과 High School level이 구분

되지 않고 한 클래스에서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자원이 부족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인데, 6기부터는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어 두 level의 분반되어 수업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좀 더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수업이 진행 될 것 같아 기대된다.

ALS는 2007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5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다. 지난 9월 13일에는 San Pablo YMCA에서 5기의 closing ceremony가 있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며 함께 박수를 치고 축하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우리는 축하의 의미를 담아 짧은 공연을 선보였다. Closing Ceremony의 축하공연이라서 뭔가 경직된 분위기를 상상했는데, 아는 노래가 나오면 아이들도 함께 나와 춤을 추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축하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이 수료증을 받을 때, 우리도 감사증서를 받았는데 예상치도 못했기에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우리가 감사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었는지 의문스럽기도 했다. 앞으로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치 연말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 나서 더 열심히 하시라고 수선 상이라고 생각하고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 ALS는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쉽지도 재미있지도 않은 것처럼 보인다. 수업에 오는 몇몇 학생들은 종이도 편도 가져오지 않는다. '어떻게 수업 오는 학생이 필기도구도 없이 올 수 있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그저 귀찮아서 일 수도 있고, 정말 편과 종이를 준비할 상황이 안 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의 준비성을 보고 의지를 판단할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였을 때 아이들이 수업에 흥미도 열정도 없어 보여 아쉬웠다. 우리가 수업을 한 지, 이제 고작 일주일..... 결석하는 학생이 많아 수업이 끝나고 돌아갈 때 늘 'NO absence!' 라고 귀여운 협박을 했다. 처음에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제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정말로 수업에 꼬박꼬박 참여한다.

우리는 수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사실 수학이라고 하기에 초등학교 수준의 산수에 가깝다. 이 달의 주요 내용은 나눗셈, 곱셈, 반올림이다. 이곳에도 구구단은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학생은 거의 없다. 그래서 수업을 시작할 때 구구단을 리마인드 한 후 수업을 시작한다. 리마인드 하는 방법은 '구구단을 외자' 게임이다.

아이들은 곱셈 문제를 풀 때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풀지만 나눗셈 문제를 풀 때는 자신이 없는지 우리들의 얼굴을 쳐다보거나 속삭이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나눗셈 문제는 그들이 어려워하는 수학문제 중 하나이다. 나눗셈 문제는 곱셈도 잘 할 줄 알아야 하고, 덧셈과 뺄셈도 잘 할 줄 알아야 하고, 풀이방법도 익혀야 하기 때문이다.



일주일의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수업진행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받았다. 그들로부터 수업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혹은 다른 제안이 있는지 써달라고 하였다. 쪽지에는 '라운아따라는 친구이자 선생님이 생겨서 너무나 기쁘다.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하루하루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어서 좋다'라는 말들이 쓰여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감동받았고, 오히려 우리가 더욱 동기부여가 되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현재 학생들은 떠갈라고, 영어, 수학, 과학, 역사 등의 과목을 배우고 있다. 이 과목들은 10월 23일 검정고시 패스를 위한 것이고, 이 시험을 패스하면 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약 50명의 학생이 등록되어있지만, 정작 수업에 오는 학생들은 20명도 되지 않는다. '처음에 등록 할 때, 분명 공부하고 싶어서 결심 했을 텐데 왜 수업에 오지 않을까? 아니면 못 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 Mommy가 말씀하셨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정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어떤 아이는 미혼모여서 자신의 자녀를 돌봐야 하고, 어떤 아이들은 생계형 가정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 수업을 잊고 지낸다. 이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생각할 여유조차 갖지 못한다. 이 아이들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누구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단순히 나뭇셈, 곱셈 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꿈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래서 왜 공부를 해야 하는 지 스스로 해답을 찾을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 Feed children. 아이들에게 즐거움의 영양분을!

Written by Albert & Genie



어느새 우리의 소문은 아이들의 연락망을 따라 마을 전체에 퍼졌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거나 동네를 걸으면서 "아떼! 쿠야!"라고 외치는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이 아이들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Bagong Pook 마을의 초등학교 아이들이다. San Pablo에 도착하고 난 뒤 한 달여 동안은 5개월을 잘 살기 위한 밀고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는데, 그 중 정기적으로 해 나갈 프로그램은 바로 바공 포옥 초등학교에서 feeding을 하는 것이다.

바공 포옥 초등학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바공 포옥 마을의 공립학교로, San Pablo YMCA 근방의 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영양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아이들은 대개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학교에 간다. 기본적인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피곤함을 느끼고,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며 두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업성취도 역시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런 내용의 조사를 거쳐, 우리 라온아띠가 필리핀에 오기 전부터 차근차근 feeding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그리고 9월 한 달 간은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본격적인 feeding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사실 아이들과의 첫만남은 지금 생각해도 경적지근하다. 엄마와 함께 바공 포옥 초등학교를 방문했다가, 갑자기 그곳 교장선생님이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주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미리 준비하고 있지 못한 채 아이들에게 내던져졌다. 주변에 모여 뚝뚝뚝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에게 난 어떻게 해야 할지 곤혹스럽기만 했다. 아직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선뜻 말을 건네지도 못했다. 그러다가 우리의 필살기 꼬리잡기를 하기로 해서, 그래도 몸 쓰는 건 자신 있는 나는 요리조리 열심히 뛰었더랬다.



서서히 차근차근 가까워졌다. 그 뒤로 feeding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선생님들과 노의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과 우리는 한 시간 정도씩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수줍지만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서는 아이들을 보며 내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않았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의 선생님이 되었다.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따갈로고어로 우리 몸의 신체 부위와 기능은 어떻게 부르는지, 다양한 색깔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익혔다. 조금씩 조금씩 대화의 주제가 생기고, 그렇게 소통은 시작되었다.

드디어 첫 feeding이 있는 9월 22일. 우리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식사를 돕는 아띠 두 분과 feeding을 시작했다. 알버트는 아침 일찍부터 불을 피우고 아이들의 음식 마련을 위해 눈물을 흘려댔다. 첫 feeding 메뉴는 닭고기와 마카로니, 각종 야채가 든 죽. 필리핀에서는 이 음식을 '루가오'라고 부른다. 눈물바람으로 만들어준 죽 한 그릇과 빵은 아이들의 하루를 생기 있게 시작하게 할 사랑 한 그릇이 되었다.



Feeding 후의 한 시간은 라온아띠와 아이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따갈로고어 판 '쪽쪽이 체조'를 준비했다.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며, 또한 몸을 쪽쪽 스트레칭 해서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다니엘의 기타반주와 함께 춤을 추며 한 시간을 정신 없이 놀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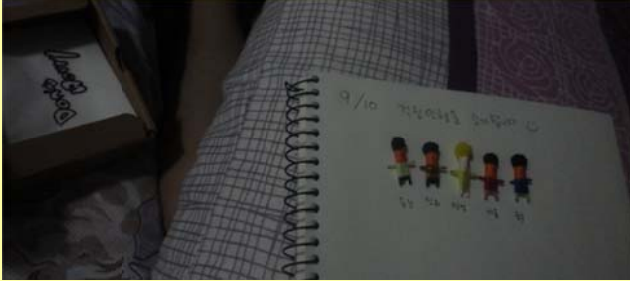
매번 아이들을 만나기 전은, 설레는 한편 긴장의 연속이지만 아이들을 만나고 나면 오히려 나도 모르게 웃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 아직 첫 시작이라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겠지만,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자체로 설렌다. 아이들에게 영양분을 주고 싶다. 하루의 에너지를 채울 영양분과 즐거움의 영양분을!





### 걱정인형을 소개합니다!

가혼은 평소엔 집에서 데리고 있던 걱정인형을 우리 팀원들에게 분양했다. 걱정인형은 과테말라 고산지대 원주민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아이들이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네 걱정은 걱정인형이 대신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자렴.”이라고 했던 이야기에서 비롯된다. 걱정인형은 각자 걱정을 한 가지씩 맡고 있고, 가운데 보이는 노란 걱정은 다른 네 걱정인들의 걱정을 주관하는 대장 걱정이다. 걱정인형과 함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걱정이에게 인사한다.
2. 걱정이에게 자신의 걱정을 호소한다.
3. 걱정이가 자는 동안 걱정을 대신해준다.
4. 시간이 지나 걱정이가 사라지면 그 걱정은 이미 해결된 것이다.

## Acculturate, Inculturate!

### 우리는 가족이다.

Written by Albert & Honey

마닐라에서 현지 코디네이터와 첫 만남을 가졌다. 우리는 간략한 자기소개를 했고, 그녀는 우리에게 자신의 소개를 한 뒤, “너희들 앞으로 나를 어떻게 부를래?” 하고 물으셨다.

“Mommy? or Tita? or Ate?”

그리고 단 1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 “MOMMY!”

그렇게 우리는 필리핀이란 낯선 나라에서 너무나도 친근한 엄마를 만나게 되었다. 만약 그 때 우리가 ‘Mommy’를 ‘Mommy’가 아닌 ‘Tita’라고 불렀다면, 혹은 ‘ate’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가족처럼 가깝게 지낼 수 있었을까?

한국에서 ‘현지 코디네이터’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약간은 딱딱하고 조금은 멀게 느껴졌던 게 사실이다. 출국 전 캠프 내 용 중에는 어떻게 하면 현지 코디네이터와 소통을 잘 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만난 우리 팀의 현지 코디네이터인 ‘mommy kristy’는 상상했던 모습과 달랐다. Mommy는 실제로 우리나이 또래의 두 자녀를 갖고 있고, 우리의 부모님과 동년배이시기도 하다. 동수와 승건은 실제로 mommy의 외모나 분위기에서 한국의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진짜 우리 엄마 같다고 늘 이야기한다. Mommy는 우리에게 “I don't have only two children.”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딸,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나이를 순서대로 정리해주시면서 각자에게 호칭을 붙여주셨다.



동수는 가장 큰 오빠니까 'kuya(쿠야)', 승건은 작은 오빠니까 그냥 'kuya'가 아닌 이름을 붙인 'kuya albert', 가훈은 큰 언니니까 'ate(아띠)'.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흘러갔지만 우리 팀에는 90년생 동갑내기 민선과 건희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멈추어 둘의 생일 날짜를 비교했다. 민선은 2월생, 건희는 11월생. 따라서 우리의 막내는 건희가 되었다. 따라서, 민선은 승건처럼 이름을 붙인 'ate sun', 건희는 'bunso(분소)'라는 호칭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민선과 건희는 여전히 그냥 친구로 지내고 있다.)

이 곳에서 건희는 'malaki(말라지) bunso'로 불린다. 큰 막내라는 뜻이다. 좀 크긴 하다. 언니인 가훈이 포근히 안아주려 해도 한 품에 싹 들어오지 못한다. 어쨌든 우리에게 건희는 막내둥이다. 하지만 사실 건희는 한국에 있는 집에서는 첫째다. 22년 동안 맏이로 살아왔던 건희에게 막내 역할은 좀 많이 어색했다. 하지만 지금, 가훈이 보기에 건희는 충분히 막내둥이 같다. 반면, 가훈은 이 곳에서 큰언니가 되었지만, 24년 동안 막내로 살아왔다. 그렇지만 지금, 가훈은 동생들이 사랑하는 든든한 맏언니다.

'kuya', 'ate', 'tita', 'tito'... 필리핀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이 곳의 공용어 중 하나가 영어이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 필리핀어가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영어로 한다. 하지만, 여느 영어권 나라들처럼 누군가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가족을 지칭하는 호칭들을 이용한다. Mommy께서 말씀하시길, 이러한 호칭들에는 'reSpect'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셨다. 그러나 분명 이 호칭들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자신의 가족에게 사용하는 호칭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용함으로써 모두가 가족이라는 유대감을 갖도록 만든다. 이러한 필리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국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첫 가라테 수업을 마치고 Mommy Kristy의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마미의 집이 있는 San Lucas에 갔을 때였다. 마미의 어머니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곳 필리핀에선 그 분을 생각하고 좋은 추억을 떠올리며 함께 하는 자리를 갖는다. 처음 뵈는 마미의 아버님을 비롯하여 많은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두 모여 생일을 축하하고 저녁을 먹었다. 밥을 먹고 옹기종기, 오순도순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며 문득 우리나라의 명절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본 게 아닌 근처에 사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고 술도 마시고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 한국의 도시에서는 많이 사라졌지만 필리핀 역시 가족들과의 관계가 똑같이 중요하고 행복의 기본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하나, 필리핀에서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 중의 하나인 Tricycle에서도 가족을 중요시 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엄청나게 많은 Tricycle 사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안전운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신에 대한 감사 메시지나 가족이름으로 꾸며놓은 모습이다. 우리와 함께 YMCA 식구인 Tita 그레이스의 아버지는 Tricycle Driver이시다. 그 Tricycle에는 그의 손녀 이름인 'Sam, Bea, Faye'가 적혀있다. 우리 나라에서 안전운전을 기원하고 약속하는 의미로 자동차 유리창에 가족의 사건을 붙여놓는 것과 비슷하다.



Mommy는 모든 것이 가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것 같다. 가족이 먼저 행복하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어딜 가든 무슨 일든 즐겁게 잘 해 낼 수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느낀 필리핀은 무엇이든 가족과 먼저 함께하고 행복도 가족으로부터 비롯된다.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아시아의 국가들과도 비슷할 것이다.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과 가족으로 인연을 맺어가는 과정과 그 가정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갈 행복. 우리는 가족이다.

# 필리핀에서 기타란..?

Written by Daniel & Genie



“Can you play guitar?” 필리핀에 도착해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다. 맨 처음, 우리는 마닐라에서 앞으로 5개월동안 머무르게 될 San Pablo YMCA에 도착하여 Opening Ceremony를 가졌다. 세레모니를 진행하며 애국가를 부르고 묵념을 하는 등의 내용은 우리나라와 똑같았지만 꼭 다른 한 가지, 바로 노래 한 소절이었다. 그리고 그 노래와 함께 기타연주도 빠지지 않는다. 연필떨하듯 너무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세레모니를 마치고서 YMCA식구들과 둘러앉았다. 아직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생글생글 웃으며 자기 소개를 하고 있던 와중 갑자기 나온 질문은 “Can you play guitar?”, 그리고 다음 질문은 “Can you sing?”이다. “Yes, a little. ^.^”이라고 말하자, 기타를 내민다. 오오 당할했다. 이제 처음 만나 수줍기만 한데 기타 반주를 얹은 노래 한 자락을 권유 받다니.

처음이라 그저 잘 웃어 넘겼다. 몇 일 두고 보니, 이거 공식적인 행사가 있던지, 아니면 YMCA에서 머무르는 시간 이든지 언제 어디서나 기타는 빠지지 않는다. 다른 마을로 놀러 갈 때에도 옆에 기타를 끼고 가서 연주한다. 필리핀 사람들은 거의 모두 기타를 조금씩 연주할 수 있는 것 같다. 항상 그래왔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기타를 서로 건네주고 받으면서 자신의 애창곡을 뽑내고, 모두 함께 노래를 즐긴다. 연주할 수 있는 기타 곡이라고는 ‘이등병의 편지’뿐인 동수, 올해부터 기타를 배우기 시작해 이제야 기타가 좀 익숙해진 민선과 전희, 4년 째 기타 배우기를 시도했지만 배운 것은 전문가 뺀치는 품 하나뿐인 가훈. 필리핀 어느 곳에서나 눈에 띄고 귀로 들리는 기타에 꽂혔다. 그래 이거 이 곳에서 연습해보자! 그리고는 곧바로 모든 단원이 빨강, 파랑, 초록 색색의 기타를 구입했다. 아, 승전은 기타를 한 번도 손 대보지 않았지만 도태되고 싶지 않아 함께 기타를 샀다.

어떻게 하면 더 기타를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잘 연습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밴드동아리를 결성하기로 했다. 우리는 입 모아 ‘쁘띠끼(butiki)’를 외쳤다. 커버터에도 언급하였는데, 우리는 계속 뿌띠끼(도마뱀)와 사랑에 빠졌었다. 필리핀 어느 곳이나 거수하는 귀여운 뿌띠끼. 그리고 그 귀여움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다’라는 뜻의 ‘malilit(말리잇)’을 붙였다. 한글로 해석해 보니 이거 웬걸, 불나방 저리 가라 하는 매력적인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의 첫 공감대는 바로 ‘기타’, 기타를 통한 ‘음악’이 되었고, 언젠가 함께 아름다운 합주를 할 날을 꿈꾸게 되었다.

이 곳 필리핀에서 기타란 애자중지 모시고 다니는 특별한 악기라기 보다는 언제나 함께하는 동반자 같다. 그리고 그 기타는 곧 음악을 뜻한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디에서든 기타만 잡으면 곧 그 시간은 흥겨워지고, 그 공간은 하나가 된다. 필리피노가 음악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기타 외에도 많이 발견된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우리 동네에는 웅장한 노래 반주와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많은 가정에 있는 비디오케. 쉽게 말해 노래방 기기이다.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골목골목마다 문을 마주할 정도로 가깝게 붙어있는 집들은 대문을 활짝 열어 쩌렁쩌렁한 음악 반주를 틀고, 사람들은 마이크를 대고 흥겹게 노래한다. 그렇지만 몇 군데의 집을 방문하면서 행사를 함께 해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니 알 것 같았다.

필리핀에서의 기타와 음악은 단순히 소리라기 보단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이다. 처음 San Pablo에 도착하고 나서 느꼈던 어색함은 함께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또한 관계의 촉매제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은 길이든, 지하철이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이어폰으로 각자 듣는 모습이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내가 지나가는 길과 마주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곳에서는 기타 실력이, 노래 실력이 서투르든 현란하든 간에, 함께 연주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즐긴다.

필리핀과 우리를 이어주는 매개체인 기타와 음악.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필리핀 팀의 관계를 단단히 해줄 음악. 기타와 함께 하는 우리의 5개월은 흥겨울 것만 같다.



라운아띠, 신문에 나오다!!



San pablo City의 주간지인 트리본 포스트지에 라운아띠가 나왔다. 동네 호수로 마실을 나갔다가 주간지의 편집장님을 우연히 만나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서 활동해야겠다!

We are TRULY living here!

[Our Mind] San Vicente로 가는 길 · PAG-1big At PAG-ASA(사랑과 희망) · BALOC. 우리는 건설을 보고, 건설을 만든다.

## San Vicente로 가는 길



जू라기 공원에 온 듯한 기분이였다. 울창하고 높게 뻗어있는 코코넛 나무와 바나나 나무들 사이로 나 있는 작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가는 도중 마주친 작은 개울 때문에 신발을 벗고 바지를 접어 올려 조심스럽게, 행어나 뱀이나 악어가 나오지 않을까 조마조마 하며 걸었다. 그 동안 필리핀에 와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과일인 람부탄 농장을 지나가는 길에 들르게 되어 턱분데 노랗고 붉게 익은, 먹음 직스러운 람부탄을 나무에서 직접 따서 먹을 수 있었다. 단순히 돈을 주고 사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직접 따먹는 맛은 더욱 풍성했다. 손수 따서 구입한 람부탄을 찬아름 안고 드디어 바나나 나무로 만든 작은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작고 아담한 집과 나무 밑의 아늑한 평상,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가지 발과 멀리 보이는 구름 걸친 산까지.....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곳이었다.

Written by Daniel





부족한 떠갈로고어로 각자를 소개하면서 사람들과 자연스런 대화를 이어나갔다. 라 온아씨는 무엇이고 우리는 누구인지, 왜 우리는 여기에 와있는지, 또 그들은 누구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며 사는지, 소소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곧 점심을 준비할 시간이 되었는데, 가스 없이 과거에 우리가 아궁이를 썼던 것처럼 마른 나뭇가지를 이용해 불을 만들어 음식을 만들어야 했지만 그들

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같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연기 때문에 눈물도 여러 번 흘리고 뜨거운 기름에 손을 데이기도 했지만 함께 웃을 수 있었기에 더욱 행복한 점심을 준비할 수 있었다. 오늘 처음 만난 것이 맛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유쾌한 웃음이 가득했다. 내 몸집만한 크기의 커다란 바나나 잎은 식탁보인 동시에 그릇이 되었다. 필리핀 현지 방식인 맨손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다. 밥을 먹기 전 3초 정도 어떻게 먹나 고민하긴 했지만 어느덧 현지인 보다는 더 현지인스럽게 먹는 모습에 나 자신도 놀라울 따름이었다.



배부르게 허기를 채우고 솔솔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자연을 벗삼아 달콤한 휴식도 가졌다. 이런 게 진짜 삶이 아닐까 싶었다. 현지 코디네이터이자 우리의 엄마인 Mommy Kristy께서 말씀하시길 필리핀 사회에서는 농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많이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엄마 Kristy께서는 도시에서의 삶보다는 풍요로운 자연과 함께 삶의 여유를 가지며 스스로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이곳에서의 삶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셨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나에게 익숙한 것이었지만 이곳에 오니 내가 얼마나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 전엔 알지 못 했던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San Vicente에서 많이 얻은 것 같다.

달콤하고 유익했던 휴식 시간이 지나고 Bob이 눈을 가린 채 진행되는 블라인드 게임을 제안했다. 서로간의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게임인데, 우리는 눈을 가린 채 파트너의 지시사항에 의지한 채 움직여야만 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건다 보니 나뭇가지에 걸리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옆에 파트너가 있었기에 그리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도 서로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행복하고 따뜻했던 시간들을 간직한 채 아쉬운 발걸음을 떼어야 했다. 돌아오는 길에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먼 훗날 혹은 머지않은 미래에 오늘의 하루가 자양양정제가 되어 내 삶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 PAG-ibig At PAG-ASA(사랑과 희망)

Written by Honey

아담한 놀이터, 아름답디 나무에 반짝 반짝 햇빛이 걸려있었다. 그게 바로 'PAG-ibig At PAG-ASA'의 첫인상이었다. 이곳은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다. 'Special children'의 학교이지만, 사실 나는 특별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어느 고즈넉한 시골 학교에 와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단순히 학교의 정경에서만 특별하지 않고 느낀 것은 아니다. 학생들을 만나고 나서도 그 느낌은 여전했다.



모두들 입가에는 행복웃음을, 눈동자에는 애정 어린 호기심이 가득해 보였다. 우리는 간단하게 배운 수화로 차근차근 대화를 나누었다. (비록, 아는 수화가 몇 개 없어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이 웃으면 나도 웃었고, 내가 웃으면 아이들도 웃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함께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분위기 속, 강당에서는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저절로 귀가 향했다. 아이들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연주였다. 아이들은 정말 음악을 느끼며 연주하고 있었다. 내가 아이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행복을 아이들 역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똑같았다. 내가 음악을 통해 느끼는 행복을 아이들도 함께 느낀다. 아이들이 웃으면 나도 웃게 된다. 그래서 난 그 곳을 특별하지 않은, 나와 같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기억한다.

## BALOC. 우리는 진실을 보고, 진실을 만든다.

Written by Genie

한국에 있을 때, 대중매체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곤 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 보기 힘든 터전, 삶의 힘겨움을 토로하는 사람들, 안겨 있는 아이들의 울먹울먹한 눈망울,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눈물 흘리는 방문객. 그 모든 장면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슬프게 자극한다. 나 역시 그들을 보고 슬픔을 느꼈고, 가끔 울기도 했고, 언젠가는 그들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던 중, 이곳 필리핀에서 내 눈으로 직접 그 곳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다.

mommy 크리스티의 친구 분이신 tita 월마께서는 'Frontline'이라는 단체의 자원활동가로서, 매주 BALOC 지역의 Smoky mountain 근방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며 feeding을 하고 계셨다. 그러던 중 우리 필리핀 팀이 Bagong Pook 초등학교에서 feeding program을 진행한다는 것을 아시고는 그 곳에 함께 방문해 볼 것을 제안하셨다. Mommy 역



시 우리가 앞으로 feeding을 진행하는 데 있어 실제 현장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관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팀 모두가 그곳을 직접 방문해 보고 싶은 마음에, 바로 그 다음 feeding이 있는 9월 20일 화요일로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Feeding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Frontline'이라는 단체는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비영리 단체이다. Frontline을 설립하신 목사님께서 1980년대 필리핀을 방문하셨다가 이곳에서 기본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시작은 곧 7개의 교회와 학교, Street children들을 위한 Feeding program으로 차츰차츰 넓어지게 되었다.

그 중의 한 곳이 BALOC 지역. 일명 '쓰레기 산'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우리가 머무는 San pablo 지역의 쓰레기가 모이는 곳으로, 약 3000가구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차를 타고 들어가는 길은 꽤 길었다. 하늘에 닿을 듯 높이 뻗은 나무들과 맑은 하늘이 펼쳐진 풍경은 쓰레기 산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곳을 지나며 나는 상상했다. 지금 가는 곳은 내가 한국에서 보았던 이미지처럼 희망을 찾기가 힘들고, 힘겹게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은 나를 슬프게 할 것이라고.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아 저어전 마을 입구의 학교에 닿았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아이들. 인사를 건네도 수줍게 바라보기만 했지만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오밀조밀 모인 아이들 앞에서 띠따 율마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이들도 함께 웃으며 노래하고 춤추기 시작했다. 행복했다. 슬퍼질 거라고 예상했던 내 기분은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자마자 녹아 내리기 시작했고 나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되었다. 그리고는 행복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feeding에 열중할 수 있었다.

웃으며 안녕했다. 다른 어느 감정도 느낄 새 없이 미소 짓다가 차를 탔다. 차를 타는 순간 아름다운 열대 우림 뒤로 저 멀리 쓰레기 산이 보였다. 되돌아 가는 길에 나는 혼란스러워졌다. 내가 보고 상상했던 모습과, 실제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미소에는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묻어났다. 비가 와서 추적추적하고 쓰레기가 널브러진 더러운 땅을 맨발로 밟고 다니면서도 해맑게 웃는 모습엔 생기가 가득했다.

그리고는 궁금해졌다. 어떻게 해서 이들은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각 가정은 어떻게 생계를 꾸리며 살아가고 있을까. 사실상 feeding program은 마을의 입구에서 얼마 들어가지 않아 자리한 학교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깊은 마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곳의 모습도 궁금해졌다. 내가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사실을 직접 보지 않고서 스스로 그림을 상상해 그려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내 안에서 준비하고 있던 슬픔 앞에 갑작스레 문을 두드린 행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조금 알 것도 같다. 난 그 순간에 분명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행복함을 느꼈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대로. 건설을 마주하는 과정은, 다른 누군가의 시각으로 해석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혹은 하나의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오늘 또 얻게 된 소중한 인연, 그들과 함께 부대끼며 더 많은 건설을 마주하고 싶다.



## 내 생에 가장 특별 할 수도 있을 생일

Written by Albert

평소 같으면 여자친구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정도로 전혀 특별할 게 없는 나의 생일. 그러나 San pablo, Philippines에서 맞는 생일은 아침부터 정말 특별했다.

어머니께서 일어나자마자 꽃을 주시고, 가훈이가 준비해온 미역으로 미역국을 만들어 아침을 먹었다. 좀 얼굴이 간지러웠으나 필리핀에서의 생일이 특별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맛본 미역국의 감흥도 금세 잊고 YMCA로 출발하였다.



그날은 YMCA에서 Alternative Learning System(이하 ALS) 프로그램의 Closing Ceremony가 있는 날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체육관에서 행사준비를 하면서 춤 연습을 하였다. 왜냐하면 Closing Ceremony에서 우리팀이 축하공연을 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전부터 준비해왔던 FIRE/NOBODY/SORRY, SORRY REMIX 댄스를 선보이는 날이 내 생일이였다. 그리고 쉬는 시간 틈틈이 "IKAW AKO"라는 Tagalog 노래도 연습해야 했다. 장난스럽게 Sam과 연습하던 노래를 Sam이 식순에 넣자고 제안하였고 Mommy가 허락하면서 난 2가지를 준비해야 했다.

참 신기한 일이다. 맞춘 것도 아닌데 Closing Ceremony가 내 생일이라니... 물론 바빴지만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막상 시작하려고 앞에서니 평소와 달리 굉장히 부끄럽고 떨렸다. 노래를 부를 때는 동수형과 Sam, 셋이서 하다 보니까 더욱 그러하였다. 민망해하며 프로그램이 끝나는데 Mommy가 Certificate를 주시며 생일을 축하한다고 크게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Happy Birthday"라고 말해주었다. 정말 고맙다. '이런 게 바로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건넨으로 축하를 받고 그들을 축하 할 기회를 준 것은 신이 주신 선물이었다.



그 이후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때가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저녁 준비가 늦었고 난 Sam과 함께 Samantha(Sam의 여자친구)네 집으로 초대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엔 Phillip까지 와서 더 늦어져서 난 뭘가 있구나 싶었다. 필리핀 YMCA에 가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 Ate 로띠의 막내아들 Landsly가 달려 나와 난 수영장 옆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걸 알았다. 고맙다 Landsly!

정말 많은 사람이 나란 사람을 축하해 주었다. 우리 멤버들, YMCA식구들, 그리고 지인들, ALS학생들 까지... 나의 24<sup>th</sup> 생일은 타지에서 보낸 외로운 생일이 아니라 축복받은 땅(LUPANG HINIRANG - 필리핀 국가 제목이기도 함)에서 보낸 것이다.



## 녹색소비를 위한 우리의 약속



### 1. 잔반 없애기

: 이곳 필리핀에서 우리는 개인 접시를 이용해 식사를 하고 있다. 개인 접시에 밥과 반찬, 그리고 물을 먹을 만큼만 담아서 음식을 쓰러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식사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절대 남길 것 같지는 않다. 마치 설거지를 하는 것처럼 쓱쓱 긁어먹는 게 일상이기 때문이다.

### 2.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뽑기 / 사용하지 않는 전구 끄기

: 집에서 생활할 때나, YMCA에 있을 때도 언제나 전기를 절약하는 것을 습관화 하는 중이다. 아직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확인해야 하지만, 곧 자연스러워 질 것을 기대한다.



[Our Body] 우리는 달린다, 마일로 마라톤 · 가라데, 하자메!

## 우리는 달린다, 마일로 마라톤

Written by SUN

마일로는 에너지 드링크였다.

매년 마일로(MILO)는 전국 마라톤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마일로는 한국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네스퀼과 비슷한 설탕이 다량 함유된 초코 음료. 마일로는 이곳에선 스포츠음료로 통한다. 마일로 마라톤은

젊은이들의 스포츠 발전을 목적으로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로 기금모금 행사를 하고 있다.

라피(Raonatti)도 Mommy 크리스티가 던지신 제안을 선뜻 물어 9월 11일 산팔블로 시티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라피는 대회에 참여하기 하루 전 여행연습을 위해 5시 반에 일어나야만 했다. Mommy 크리스티, 쌀, Batang Y(YMCA 청년 봉사자들)인 제프리, 버니와 라피 식구인 대니얼, 알버트, 허니, 썸, 지니는 산팔록 호수로 향했다. 전날 밤, 썸은 이렇게 신나는(^^!) 행사를 우리끼리만 할 수 없다며 너희들도 함께 하자고 바탕Y와 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었다. 출발하기 전, 라피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지만 호수를 걸으며 그들은 깨달았다. 더웠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해가 뜨기 시작하자 매우 더웠다.

천천히 걸으면서 산팔록 호수를 둘러보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 중 특히, 조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 만났던 경





찰 분들이 기억에 남는다. 라피는 경찰들 앞에서 따갈로고어로 스스로를 소개했다. 라피 중 허니는 단연 돋보였다. 허니가 속스러운 표정으로 “아코 포 아이 허~니! (저는 허니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경찰들은 그녀에게 환호했다. 그녀는 경찰들의 워너비가 되었다. 그녀의 인기는 다음날의 마라톤에서도 이어진다.

이 날의 마라톤을 모두 함께 참여하기 위해 전날 밤 Y식구인 쿼야 필립(YMCA의 전 Youth Director), 아이안(Mommy 크리스티의 아들), 씬, 알알(Mommy 라이린의 아들)도 함께 라피의 숙소에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라피식구와 Y식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그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우리가 출발선에 도달하기 전 이미 스타트 신호가 떨어졌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상금을 언감생심 꿈꾸었던 지니와 씬은 수많은 인파를 보는 순간 바로 포기했다. 마라톤대회라기 보다는 축제에 온 기분이었다.

처음에는 5명의 라피가 함께 달렸지만 그들은 점점 흩어졌다. 달리가 오랜만인 허니는 라피들과 헤어져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녀는 자꾸 ‘괜찮아?’라고 물어보는 아이안을 만났고, 쿼야 필립과 사만다(씬의 여자친구, BRGY. Youth Chairwoman)를 만났고, 다정한 모자(母子)인 Mommy 라이린과 알알을 만났다. 그리고 동네 주민을 만났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건넸고 그들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지니와 씬은 평소 달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함께 열심히 달렸다. 지니는 머리카락이 땀으로 흠뻑 적었지만 끝까지 결승점을 향해 달렸다. 그들은 달리던 중 라피 리더인 대니얼을 만났다. 그는 사건을 찍으며, 라피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동분서주 왔다갔다 하였다. 그는 역시 리더였다.

5km 완주를 마치고 지니와 씬은 라피와 YMCA 식구들을 기다렸다. 쿼야필립과 사만다, 앨버트가 마지막으로 결승점에 도착하자 그들은 함께 무료로 나눠주는 마일로를 마시기 위해 줄을 섰다. 라피는 마일로의 참 맛을 알게 되었다. 거의 탈진할 뻔했던 지니는 마일로를 마신 후 기력을 되찾았다.

큰 탈 없이 마라톤을 마친 그들은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와 둘러앉아 식사를 하였다. 함께 하는 식사는 두 배로 꿀맛이었다. 우리는 함께여서 그저 행복했다.



## 가라테, 하자메!

우리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간동안 YMCA에서 Karate수업을 받는다. 가라테를 통해 체력을 기르고 정신도 단련하고 있다. 가라테 수업을 받고 난 후 우리는 평소에 안 쓰던 몸을 쓰느라 3일정도 근육통에 시달린다. 하지만 점점 고통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고, 수업 내용도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지난 시간에는 가라테를 배운 지 2주일도 채 되지 않아 알버트와 대니얼의 대련이 있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그들의 대련은 점점 과열되어갔다. 둘의 대련을 지켜보던 가라테 관장님은 그들에게 '힘을 줄여라'라고 이야기 하셨지만, 이미 그들의 눈빛은 승부욕으로 불타고 있었다. 결국, 대니얼의 얼굴만한 알버트의 발이 대니얼의 턱을 가격했고, 대니얼은 턱이, 알버트는 발이 부어 올랐다. 평소 형님먼저, 아우먼저 하면서 지내는 둘은 서로를 부둥켜안으며 미안함을 표했지만 이미 물은 앞질러진 후였다. 어쩌거나 우리는 가라테 수업을 이렇게 즐기고 있다. 아직은 일본어로 된 가라테 용어도 어색한 힘피지만, 곧 한 단계 더 나아갈 모습을 기대해 본다.

우리의 모습 하나.



윗줄 왼쪽부터 가훈, 건희, 동수, 아랫줄 승건, 민선.

가훈의 사랑스러운 네임태그 선물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필수품이 되었다. 이곳에 와서 9월 한달 동안, 거의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그 때마다 이 네임태그와 함께 자기 소개를 한다. 특히 네임태그마다 각자의 특징을 너무도 잘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승건과 동수는 말할 필요도 없고, 건희는 멍~한 표정에 미세하지만 피부가 가장 까맣다. 민선은 5:5가르마다. 그리고 가훈은 머리가 쪼오곰 크다. (열굴 아님)

## 이 달의 마사람!!



마미(MAMI). 엄마를 의미하는 마미(Mommy)와 동음이의어. 하지만, 우리가 엄마만큼 이 마미를 좋아한다는 부분은 흡사하다. 한국의 칼국수가 떠오르는 쫄깃한 면발에, 담백한 소고기를 잘게 찢어, 푹 끓인 간이 잘 된 육수와 함께 먹는다. 개인의 기호에 따라 말린 마늘, 다진 쪽파, 칠리소스 등을 추가하면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삶은 계란을 으갠 국물에 밤을 말아 먹으면 이 곳이 바로 천국!!!!

# Albert's Letter



저 파란 하늘 구름위로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햇살처럼  
환한 미소 가져온 고대(들) 있어  
지금 난 행복 합니다.

사랑하는 Mommy Kristy, 존경하는 송건호 선생님, 걱정만 끼쳐드려 죄송스런 아나 간사님, 보고 싶은 소명 간사님. 전 필리핀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매 순간순간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기만 하냐구요? 에이, 뭐 물론 힘들 때도, 기분 나쁠 때도 있지만 그 순간들도 내가 필리핀에 와서 생긴 일이니깐 다들 좋게 생각합니다. 라온아띠 포스터에 있던 '내 생애 가장 뜨거운 시간'이란 말이 거짓말이 아녘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거든요. 제 심장을 라온아띠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인데 여기서 만난 환한 미소의 사람들과 있어 지금 전 행복합니다. 편지 아닌 편지를 쓰라고 했는데... 맨 정신에 이야기 하러니 좀 민망하기도 하네요. 알고올이 필요한가..... 하하하하하

필리핀팀의, 아니 라온아띠 6기의 사고뭉치인 제가 걱정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어주셔서 항상 감사하구요. 내 생애 가장 뜨거운 시간 1/5가 지난 지금,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다면 하는 시늉은 하나까요! 다시 찬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멤버들 찬달 간 고생 많았어요~! 사랑해! 하하하하하







## Daniel's Diary

9월의 일기

여기는 San Pablo City, Laguna Province에 위치한 작은 도시이다. 이곳에 온지도 어느덧 한달. 지난 한 달은 그 어느 때보다 몸도 마음도 바쁘게 보냈던 시간이었다.

처음 오는 곳이라기엔 그다지 낯설지 않았고, 처음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다. 특히 어딜 가도 'MaSarap! (Delicious)'을 외치게 되는 맛있는 음식들은 더욱 행복한 생활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되었다. Bagong Pook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Feeding 프로그램에서 만난 아이들, Frontline에서 만난 아이들, 스모키 마운틴에서 만난 아이들, ALS(Alternative Learning System) 수업에서 만난 다양한 아이들, 그리고 지난 한달 간 인사 나누었던 많은 사람들. 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로 하루는 행복으로 가득 채워졌다. 육체적으로 피곤한 나날들이 늘어갔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따뜻해지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라운아피... 참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Volunteer라는 이름으로 왔지만 네 명의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참 많은 것을 알게 해주고 있다. 가끔은 죽는 날까지 내가 나에 대해서 몰랐을 지도 모르는 점을 깨우치게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란 사람이 얼마나 더 작고 부족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5개월이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에는 지금보다 더 성장한 나를 기대하며 더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단단해지기를 게을리하지 않겠노라고.....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9월의 일기는 여기서 끝!



## Genie's Diary

### #1. 나, 떠나는 건가?

출국을 앞둔 국내 훈련 전날. 주섬주섬 짐을 챙겼다. 매번 여행을 떠나기 전이면 끊임없이 이런저런 가능성을 생각하며 짐을 꾸리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그리고는 과연 여행은 더 가지기 위해 떠나는 것인가, 비우기 위해 떠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여행에 익숙한, 군더더기 없이 가벼울 수 있는 사람이고 싶어졌다.

글쎄, 이번엔 여행이라기 보다는 '나섬'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5개월 정도의 긴 시간을 나서는 처음인데, 짐을 다 싸고 보니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배낭 하나와 손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아서 '어라, 뭔가 빠졌나?'하고 계속 곰곰이 생각하다 미련을 떨쳐 버리기로 했다.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필요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있는 그대로 넉넉해진다.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티 있어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서도 거뜰히 딸 수 있는(물론 내가 힘이 세긴 하다) 배낭을 매고서, 정말 5개월 동안을 나서는 건지, 내가 떠나긴 하는 건지 설감을 하지 못하고 가볍게 짐을 나설했다.

### #2. 내가 남긴 것들

필리핀에 도착하기 했는데, 이거 원 전혀 낯설지도, 불편하지도 않다. 그냥 새로운 것들은 새롭게 받아들여지기만 한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 두고 온 것들에 대한 생각이 난다. 사람들, 장소들, 물건들.. 그리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 #3. 생각이 없다..!!

San Pablo에서 생활한 지 1주일이지났다. 난 항상 뭔가를 하기 전에 이런저런 고민, 생각이 많아서 탈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나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 없이 모든 활동들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처음이다. 내가 있는 이곳이 너무나 익숙하게 여겨져서 그런가.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지, 흠 앞으로 더 두고 볼 일이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부터 고민하고 싶었던 것들, 생각거리. 그것들 마저 잊지 말자고 다짐한다. 여긴 또 다른 삶이지만 내 삶의 연속이니까.

### #4. 열대 과일에 빠지다.



난 과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주변에서 '왜 그 몸에 좋은 과일을...?'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열대 과일의 매력에 빠졌다. 삐죽삐죽한 겉모습 안에 달콤한 속살이 감춰져 있는 람부탄, 말이 필요 없는 상큼한 망고, 새로운 맛 코코넛, 달콤 새콤 바나나, 그리고 시원한 맛의 파인애플! 람부탄은 한 번 손대면 접시 위에 껍질이 산처럼 쌓일 때까지 멈출 수 없을 정도다. 한국에선 싫어했던 망고는 여기서 만나보니 진짜 이거 참 맛있다(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엉영), 바나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은 수보다 여기에서 훨씬 더 많이 먹는 것 같다. 달기만 한 줄 알았던 바나나가 달콤 그리고 새콤하니 참 매력 있다. 파인애플은 지금 제철이 아니



라 자주 만나건 못했지만 별이라는 12월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나 좀 건강해지겠지 훗

### #5. Don't be Shy!!!

난 어떨 땐 정말 적극적으로, 어떨 땐 정말 수줍음을 탄다. 그래도 '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항상 되새기지만 아직 수줍다. 너무도 친절하게 다가와 주거나, 혹은 내가 다가가고 싶은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말을 걸거나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게 아직은 참 서투른 것 같다. YMCA 식구들과 이야기 하는 첫 번째 물 중 하나는 바로 "DON't be Shy!!!". 차근차근 노력해야겠다. 어느 상황에서든 즐겁게 나를 푹 담글 수 있도록.

### #6. 내 빨강 기타

그렇게 배우고 싶었던 기타를 드디어 올해 초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손에 익을 무렵, 필리핀으로 왔다. 자꾸만 기타가 생각났다. 그런데 이거 웬 걸, 여긴 기타가 없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도 섭섭한 나라다. San Pablo에 도착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비싸지 않고, 웬지 끌렸던 빨강색 기타를 샀다. 한국에서보다 더 열심히 연습할 것 같다. 아니 연습이라기 보단 자연스럽게 달고 살 것 같다. 내가 정말 열중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 중 하나를 여기에서 마음껏 할 수 있다니. 필리핀과 나의 인연? 그 하나는 기타가 아닐까.



### #7. 관계

첫 한 주는 정신 없이 보냈다. 그리고 나서 2주째, 트라이시클을 타고 가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맞다, 난 여기에 단순히 잠깐 머물다 가려고 온 게 아니구나, 진짜 여기에 살고 있구나.' San Pablo에서 만난 사람들은 내가 5개월이라는 꽤 긴 시간을 살다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정겨운 가족처럼 나를 대해주고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제안한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그들과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

내게 '관계'는 또한 '책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 난 잘 살고 있는 거 같긴 한데.. 진짜 '잘 살다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 #8. 나를 보다

매일매일을 새로움이라고 느끼고, 새로움이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설지 않음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에 익숙한 요소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새로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게 '익숙함'은 무엇이었는지도 생각해 봐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러면서 각각의 환경에서 익숙했던 나와 그렇지 않은, 다른 나도 보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 그 둘이 다른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여정에서 진짜 나를 찾고 싶다.

### #9. 너를 보다

'시작이 마냥 즐겁다. 그리고 무엇보다 팀원들에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차츰차츰 생길 것 같다. 평소에 항상 난 스스로 혼자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성향인데, 도움을 요청하겠다. 그리고 잘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인데, 노력하겠다.'

마닐라에서의 첫 날, 팀원들에게 했던 말이다. 아직 완전히 우리가 '가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에게 익숙해졌고, 그들 덕분에 행복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많이 배운다. 사람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에 대해. 함께해주어 고맙다.



# Honey's Letter

2012년 2월 1일의 김가훈에게 보내는 편지. ☺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편지를 읽었으면 해. 아직 4달이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온전히 갈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나는 지금 참 많이 행복해. 내가 한국에서 23년을 살아오면서 '행복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지냈을까? 솔직히 손에 꼽을 정도였던 것 같아. 그렇지만 그건 내 지난 23년이 행복하지 않아서는 분명 아니야. 충분히 내가 함께 했던 순간들마다 사랑 받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지내왔지. 그런데 왜 '행복하다'는 말을 아끼면서 살았을까.

이곳 필리핀에 와서 지내면서 난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라는 말을 해. 진짜 행복하니까. 행복하다는 말은 표현할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 그리고 행복은 감기처럼 옮아가는 것 같아. 상대방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지거든.

문득, 매일 매일이 행복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행복하다고 말 할 수 없는 날이 오면 어떨지 생각했어. 근데 그런 날은 아마 없을 거야. 아주 많이 행복한 날과 조금 많이 행복한 날만 있을 거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면 그게 곧 행복이 된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곳에서의 시간 덕분에 내 앞으로의 인생도 분명 행복할 거야. 그리고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게 순간을 살아 갈 거야. 아,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행복하다!!

지금 San Pablo에서 만난 인연들로부터 이렇게나 많은 행복함을 전달받았으니, 나도 이제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 그 시작은 우리 팀원들부터 할 거야. 매 순간을 같이하고 (솔..직..히..) 나를 제일 많이 행복하게 해주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니까. 우리가 함께 행복한 순간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어.



# Sun's Letter

필리핀에서 부치는 연애편지 - ViS à ViS

안녕, 다니엘, 알버트, 러니, 지니...!

우리끼리 '벌써 몇 개월 함께 산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고작 몇 주 밖에 안 흘렀네.'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곳에 온지 한 달이 되었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 마닐라 공항에서 내려 산파블로 시티로 왔을 때까지 신 기함보다는 늘 보아왔던 것처럼 친근했고 지금 역시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우리는 이미 가족이 되었어!... 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오버스럽지만^^;; 점점 서로가 서로에게 열키고 열켜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필리핀에 도착한 첫날, 마닐라에서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마치 연애를 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하였을 때 물론 우리 모두 정말 격하게 동감했지만, 지금은 글썽... 조금은 오래된 연인처럼 두근 두근거리는 마음보다는 편안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진 것 같아.

다니엘, 한 달 동안 리더로서 정말 수고 많았어. 내일이면 리더가 바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오빠로서 당신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 것 같진 않지만 국내 훈련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느라 얼마나 애를 써왔는지 잘 알고 있어. 고마운 마음뿐이야. 당신이 있어 참 든든하고 편안해.

알버트, 당신은 익살스러운 표정과 입담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야. 다만, 한가지 부탁이 있다면 그 많은 수다 속에서 남에 대한 이야기 대신에, 똑 같은 이야기의 반복 대신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 온 사람인지에 대해 더 많이 말해주었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해.

러니, 당신이 있어 늘 재밌고 즐거워. 당신이 있어 피드백시간이 끝난 후의 방론회(여자단원들끼리의 뒷담화, 주로 남자단원들의 뒷담화를 즐기고 있다^^; 농담!) 시간이 기다려져. 심지어 당신은 망가지기 쉬운 우는 모습까지도 사랑스러워. 당신의 토크도, 글도 모두 맛깔스러워. 내가 좋아하는 길거리 떡볶이처럼... 또 가끔씩 보여주는 당신의 언니다운 면모는 나를 감동시키지.

잘자! 꿈에서 만나!

지니, 막내라고 부르고 있지만 막내동생이라고 부르기에는 살짝쿵 부담스러운 그저 친구 같은^^ 당신. 국내 훈련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보면서 참 능력있고 골저스(gorgeous)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어. 고대가 가진 깊은 생각, 따뜻한 마음씨, 번뜩이는 재주로 훗날 당신이 원하는 필드에서 반짝 반짝 빛나는 존재가 되길 기도할게. 지금은 떠나 보낼 수 없어.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같은 침대를 쓰고 있으니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 말이 당신의 어떤 모습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모습도 사랑해. 당신들을 믿어.



다음 호를 기대해주세요!

Salamat po^^